

신년대담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지역경제 과제 - 김일태 소장·전의천 원장

“제조업 분야 작지만 강한 ‘强小기업’ 많이 만들어야”

2013년 새해에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다. 새 정부가 경제정책 아젠다를 어떤 방향으로 잡느냐에 따라 향후 5년, 나아가 대한민국의 경제 방향이 달라진다. 경제 전문가인 김일태 전남대 지역개발연구소장(경영학부 교수)과 전의천 조선대 경영대학원장(무역학과 교수)을 초청해 글로벌 경제 전망과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지역경제 과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답은 지난 31일 광주 라마다플라자호텔에서 진행했다.

▲전의천 원장(이하 전)=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이 고착되고 있다. 스페인·이탈리아의 상황 악화 등 유럽 재정 위기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미국 재정절벽의 파장, 성장 정체로 비틀대는 인도·브라질 등 신흥국들의 과거 회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은 새해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김일태 소장(이하 김)=IHC 글로벌 인사이트는 새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2.6%로 예측했다. 지난해 2.5%보다 조금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남유럽의 재정 위기, 미국 오바마정부의 재정절벽 해결 등 불확실성을 겹쳐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계 경기는 선진국·신흥국 할 것 없이 전 지역, 모든 업종에서 어려워질 것이다.

▲전=2013년은 성장 패러다임 전환기의 시발점이다. 위기 여파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후 세계 각국은 불균형 성장에 대한 반성과 해결을 과제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영향력 제한, 소득 격차 축소, 노동조건 개선 등 경제민주화가 화두다. 미국은 소득 상위층에 대한 증세, 의료보험을 도입한 오바마 행정부가 재집권했다. 중국은 부패 척결과 함께 조화로운 경제발전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있다. 불균형 성장정책에서 탈선하는 부작용을 줄이고 성장의 효과가 더 많은 계층으로 흘러들 수 있도록 하는 등 성장정책의 부분 수정이 유력하다.

▲김=세계 경기는 불확실성이 얼마나 겹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우리나라도 이런 기조에서 대응전략을 짜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대기업 중심의 기업 프렌들리 정책을 썼다면



김 일 태
전남대 지역개발연구소장
▲서울대 산업공학과 졸업 ▲미국 조지아대 경제학 박사 ▲전남대 경영대학장 ▲한국경제통상학회 회장 ▲한국지역경제학회 부회장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전 의 천
조선대 경영대학원장
▲조선대 무역학과 졸업 ▲원광대 경영학 박사 ▲일본 게이오대 방문교수 ▲중국 광둥외무역대 객좌교수 ▲국제지역학회 부회장 ▲조선대 기획조정실장

박근혜 정부는 양극화 해소 등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새 정부는 먼저 대·중소기업의 불공정 관행을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수출·내수기업의 동반성장 방안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다음으로는 일자리 문제다. 성장의 과실이 일자리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전=박근혜 당선인을 선택한 이유는 경제다.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제성장의 둔화에 있다. 일자리 감소가 원인이다. 저성장 구조에 돌입하면서 고용은 단지 기업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이슈가 되고 있다. 저성장 극복과 동시에 어떻게 고용 창출형 경제를 만들어내느냐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심이다.

▲김=새정부 출범 후 가장 크게 바뀔 경제정책은 경제민주화다. 박 당선인이 밝힌 경제민주화 3대 원칙은 △경제적 약자를 돕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대기업의 잘못은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경제민주화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중소기업의 생존이다. 이는 기업의 지배구조문제를 투명하게 하겠다는 의미다.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와 불공정관행 근절 등 대·중소기업 상생도 강조됐다.

▲전=경제민주화가 촉발된 계기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 때문이다. 특히 박 당선인은 ‘중소기업 대통령’을 내세웠다. 앞으로 5년간 경제정책에서 중소기업을 중심

에 놓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대기업 수출에 의존하는 외화가 아닌 대·중소기업이 함께 수출과 내수를 끌어가는 쌍끌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공정한 시장질서 확립도 중요하다. 건설과 IT, 유통업계에서 불공정 폐해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바로잡아 경제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소비자 중심으로 시스템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다만, 대기업과의 충돌을 고려해야 한다. 박 당선인은 전경련 방문해 중소기업 영역과 골목상권 침해 자제, 정년 보장 등 회사가 이익 극대화에만 몰두하지 말고 미래 성장·일자리 창출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지역경제

에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시스템을 만들려면 부품·소재·기계 등 3대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전제돼야 한다. 대기업의 막대한 R&D 투자가 필요한 IT 등을 제외하고 제조업에서 작지만 강한 강소기업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강소기업 육성은 새 정부와 지자체의 핵심과제이자,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안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통문제도 과제다. 극심한 양극화를 완화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끌어야 한다. 불공정과 대립이 아닌 대·중소기업이 대화와 합의를 통한 동반성장 추구가 경제민주화가 핵심 가치다. 일본의 경우 예전에 중소기업 보호정책을 버리고 경쟁시스템을 도입해 자생력을 키웠다. 우리나라도 중소기업 정책을 정책자금 지원이나 보호보다는 경쟁력 확보



지난 31일 광주 라마다플라자호텔에서 전의천(왼쪽) 조선대 경영대학원장과 김일태 전남대 지역개발연구소장이 새해 경제전망과 지역경제의 과제에 대해 신년대담을 하고 있다.

김 “성장 과실 일자리로 나와야 동반성장” 전 “FTA 전문 인력 양성해 선제 대응을” 김 “車 100만대 생산기지화 꼭 지켜져야” 전 “지역발전 이끌 공약 실현 정치력 필요”

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김=중소기업을 살리려면 내수를 살려야 한다. 수출도 중요하지만 삶의 터전은 내수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내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사회가 고령화하면서 소비성향이 저하돼 있다. 광주·전남은 더 심각하다. 활력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전=한·중 FTA협상이 진행 중이다. 광주·전남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전남의 경우 농업 분야의 타격이 우려된다. 하지만 FTA 활용은 저조하다. 광주지역 기업 중 56%만이 FTA 활용하고 있다. 전문인력 부족이 원인이다. 전문인력을 양성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김=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의 생산물량 해와 이전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전산업은 내구재산업이다. 성장 속도가 더딘데다 포화 상태다. 결국 원가 절감과 인건비 문제 등으로 인해 해외 이전은 불가피하다. 타개책은 가전의 개념을

기업도 변화야 한다.

▲김=광주·전남 지역민들은 대선 이후 미래를 앞당기고 있다. 대타령이 필요하다. 총리·장관 몇 명 나오느냐는 카타르시즘 위안은 되지만 진정한 지역발전은 될 수 없다.

박 당선인은 광주에 약속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화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자동차 100만대를 생산하면 협력업체들이 광주로 내려오게 된다. 부품·소재산업 육성의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다. 또 일자리도 늘어난다. 광주가 중국·인도 등 동남아의 수출 전진기지가 될 것이다.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등 문화수도 사업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SOC 투자가 동반돼야 한다. 경전선 남해안 철도고속화 사업도 시급하다. 길이 뚫려야 마음도 뚫린다. 대구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았다. 광주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지 않으면 발전이 어렵다. 지속적으로 광주·대구가 상생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새 정부의 국

민대통합이 광주·전남을 정치적으로 치유하고 경제적으로도 치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전=선거는 끝났다. 공약 실현을 담보할 수 있는 정치력이 요구된다. 눈에 띄는 대형 이슈는 아니더라도 지역발전을 견인할 만한 공약들을 잘 챙겨야 한다. 구체적인 공약 이행 장치를 만들어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지역예산은 무엇보다 정치권의 의지가 중요하다. 특히 새누리당은 지역발전을 내걸었던 대선공약이 헛구호가 아니었다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지역예산은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이 호남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첫걸음이다.

▲김=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3단계 사업이 종료됐다. 3년 연속 전국 1위라는 성과를 이뤘다. 광주는 제조업 생산의 변동성이 높다. 수출이 어려우면 광주경제는 위기가 온다. 성장 가능성 높은 연구산업을 육성해 조화롭고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게 필요하다. 후속연계사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그린카, 스마트가전, 지능형로봇, U-헬스, 물산업 등을 고려해 볼 만하다.

새해도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세계 경제 성장의 속도는 더디지만 성장할 것이다. 수출·내수 경기도 조금은 나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중소기업이 상생하고 주머니도 두둑해져 살림살이가 나아졌으면 한다.

▲전=한파가 닥쳐오고 있다. 경제위기 극복 난제들이 수북하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못 찾고 있다. 성장엔진을 살리는 게 급선무다. 새 정부는 인사 대타령,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정리=박정욱기자 jwpark@/사진=최현배기자 choi@

호남을대표하는 여행브랜드

조이투어

JOY TOUR CO.,LTD

대표전화. (062) 234-322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FAX (062) 234-3141

대표이사 최금환
http://www.joy2000.kr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겨울방학때 떠나는 무안-마카오 전세기

12/29-2/2 (매주 수, 토 출발!! 총 10회!!)

- ★ 마카오/홍콩 2박4일 ₩999,000~
- ★ 마카오/홍콩/심천 2박4일 ₩1,049,000~
- ★ 마카오/홍콩(해양공원) 3박5일 ₩1,049,000~
- ★ 마카오/홍콩/심천 3박5일 ₩1,099,000~
- ★ 마카오/주해 골프 36H+관광 2박4일 ₩1,399,000~
- ★ 마카오/주해 골프 54H+관광 3박5일 ₩1,649,000~

무안에서 떠나는 태국여행 (12/27~2/25 총16회)

- 방콕/파타야 3박5일 ₩849,000~
불포함: 유류할증료(150,000), 가이드&기사 팀(\$40)
- 방콕/파타야 3박5일 ₩1,299,000~
불포함: 유류할증료(150,000), 가이드&기사 팀(\$40), 전통카, 도작일 석식, 클럽 중식, 캐디팀(300바트/18홀 1인기준)
- 방콕/파타야 3박5일 ₩899,000~
불포함: 유류할증료(150,000), 전통카, 캐디팀300바트(18홀/1인), 캐디팀200바트(18홀/1인), 미팅&샌딩비, 세탁비(50바트/1일)

일본

kbc 광주방송 일본문화탐방
최첨단과 천년의 전통이 함께하는 나라!! 일본~!!
온천으로 유명한 벵부 & 일본 열도를 이룬 4개의 섬중 가장 남쪽에 있는 섬, “9개의 지방”을 뜻하는 규슈!!

가족여행으로 좋은 일본 규슈 온천 고급별장 4일 ₩399,000
출발일: 1/8, 14, 16, 18 2/7, 11(광주,출,도착) 불포함: 현지 가이드 및 기사팀

특가 규슈, 기타규슈, 히타, 아소+전통료칸 야마가세 온천즐거기 4일 ₩549,000
출발일: 1/8, 14, 15, 20, 28, 2/5, 11, 24 불포함: 유류할증료(₩30,000/11월기준), 가이드&기사 팀(₩20,000/1인)

특가 규슈, 유추인, 벵부, 히타, 아소+전통료칸 야마가세 온천즐거기 4일 ₩549,000
출발일: 1/10, 12, 18, 2/1, 7, 25, 28 불포함: 유류할증료(₩30,000/11월기준), 가이드&기사 팀(₩30,000/1인)

특가 나가사키, 유류품의 하우스템보스 4일 ₩669,000
출발일: 1/20, 2/7, 11 불포함: 유류할증료(₩30,000/11월기준), 가이드&기사 팀(₩30,000/1인)

항공으로 떠나는 일본 제일의 상업도시 오사카 & 아름다운 태평양과 환상적인 온천이 어울어진 와카야마!!

고품격 오사카, 교토, 오카야마 4일 ₩929,000
출발일: 1/13, 27, 21 광주출도착 ALL포함

중국

무안-상해/소주/항주 5일 ₩499,000~
무안-상해/장가계+천문산 4일 ₩849,000~
무안-상해/장가계/소주 5일 ₩1,049,000~
무안-북경 4일 ₩499,000~
무안-북경 5일 ₩569,000~
불포함: 개인경비, 중국단체비자, 유류할증료

국내 여행

제주도 여행 3일!!!

항공 광주-제주도 ₩259,000~
불포함: 기사&가이드팀(₩10,000), 석식

11월 1일 광주 ↔ 목포항 셔틀버스 운행 개시

★ 광주-제주도 2박3일(씨스타크루즈호 왕복 / 일반호텔 5인실기준) ₩159,000~
불포함: 기사&가이드팀, 현지작별관광, 자유석식

★ 씨스타크루즈호 목포-제주 편도 <광주출발 목포항 도착 셔틀버스포함> ₩30,000

올름도 2박3일 ₩310,000~
1박2일 ₩279,000~
홍도, 흑산도 1박2일 ₩189,000~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요시, 광고사행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제2009-1호

●2억원 영업규모준비 기업 / 여행경제 기업입점
●교통편: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 / 전지역

●공동조전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지보험 기업(배상용: 1억원, 국내상품 5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무료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경비(없을 단, 기사/가이드 통사료, 선택관광, 작곡 비자비용 별도) ●최소 출발인원: 상동에 따라 다름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약시 계약서(취소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